

광주시 “한양·호반 그대로 사업 강행”...의혹·불신은 여전

검찰 공무원 4명 기소 수사 마무리...광주 민간공원 사업 어떻게 되나

검찰 수사로 행정 신뢰도에 금이 갔지만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비리 연루 업체 사업권 박탈 등 조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후 탈락업체의 소송 가능성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사업 차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까지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수랑·마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2지구 등 8곳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수랑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오렌지 이엔씨, 마복은 호반베르디움, 봉산은 제일건설, 송암은 고운건설, 일곡은 이지건설, 운암산은 우미건설, 신용은 산이건설, 중앙2지구는 호반건설이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지 중 시행자를 지정한 곳은 마복·봉산·일곡·신용·운암산·중앙2지구 등 6곳이다. 수랑·송암 공원은 시행자 지정 전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협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광주시는 남아있는 중앙공원 1지구와 중외공원의 경우 이르면 다음주 중 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공원 2지구 역시 기존 협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결과

중외공원·중앙공원 1지구

내주중 2곳 사업자와 협약

재판 결과·탈락업체 소송편

사업 차질 우려 목소리



광주시 '민간공원 비리의혹' 수사 결과 발표하는 광주지검 윤대영 공보관.

에도 중앙 1·2지구 우선협상자에 변화를 주지 않고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정종제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이 특정감사를 악용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을 누락

하는 방법으로 중앙 2지구 우선협상자를 변경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중앙 1지구 역시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던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해 사업권 포기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 확정 전에는 무죄추정 원칙이 아니냐. 검찰 수사 결과나 여론에 따라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할 경우 향후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여론 부담, 행정 신뢰도 하락에도 사업에 변화를 주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은 “광주시의 여건상 시비를 들어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는 어렵고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지적대로 우선협상자가 뒤바뀐 부분(중앙공원 1, 2지구)에 대한 의혹과 불신은 여전하다. 행정 신뢰 상실 대처 방안과 혐의가 재판에서 확정된 이후의 사업 추진 대비책까지 광주시가 사전에 마련해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올 7월 1일부로 공원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지어 사업비로 충당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한 곳인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광주지검이 8일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정종제 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관계자가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중앙공원 2지구는 애초 지난해 11월 금호산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광주시 특정감사를 거쳐 같은해 12월 우선협상자가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중앙공원 1지구 역시 광주도시공사가 애초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주)한양이 우선협상자

로 새롭게 선정됐다. 10개 사업 대상지 가운데 노른자위로 꼽힌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가 광주시 특정감사를 거쳐 변경되면서 특혜 비리의혹이 불거졌다. 유출해서는 안 될 제안서 평가결과표가 유출된 사실과 함께 ‘탈락업체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공모

지침과 달리 광주시가 업체 이의를 받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급기야 지난해 4월 광주시민단체인 광주 경제정의실천연합 측이 검찰에 관련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로 연결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측근 택지공급 관여 의혹 제기에 “기가 막힌 일”

정세균 인사 청문회...“문 대통령 대체로 잘하고 계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자신의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은데 간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잡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런 의혹 해명에) 소비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화성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사진이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선 사진 촬영이 2017년 6월 1일이었고, 공사의 택지 개발 사업은 2015년 추진됐다는 점을 들어 “2015년 일어난 일을 2017년에 연결하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정 후보자는 ‘사인간 채무’가 2010년 1억원, 2011년 5000만원 각각 축소 신고됐다는 지적에 “제 형님, 처남, 가까운 친구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소명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는 “국회선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

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다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남북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폐기 정책과 관련, 정 후보자는 “원자력발전만 예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조합)’를 해서 전기를 공급할 거냐,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없다는 질문에는 정 후보자는 “전 탈당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네의 작품 ‘인상-해돋이’로 안방 해맞이



(296)해돋이

새해 아침 인사로 친구들로부터 해돋이 사진과 동영상 이미지를 몇몇 받았다. 부산 해운대에서, 울산 간절곶에서, 완도 바다에서, 무등산에서 해돋이를 맞이한 친구들의 모습이 힘차고 생기발랄해 보인다. 게으르기도 하고 추위타는 핑계로 일평생 단 한 번도 새해 해맞이를 위해 신 새벽에 멀리 길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유난히 한심하다 생각된다.

대신, 미술사에서 많은 논쟁을 가져온

과 동시에 해돋이를 그린 가장 유명한 그림, 클로드 모네(1840~1926)의 ‘인상-해돋이’(1872년 작)를 따뜻한 방안에서 감상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인상-해돋이’는 아침 안개를 통해 드러나는 항구풍경과 떠오르는 아침 해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저 멀리 솟아오르는 한 점 붉은 해의 인상을 강렬하게 담아 일출 순간의 불안한 바다풍경을 표현하고자 하였지만 마치 그리다만 밀그림 같기도 하고 대범한 터치를 한답시고 화면을 제대로 색칠하려고 하지도 않은 듯하다.

당시 유럽사회에서는 ‘살롱전’을 통해 예술가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곳에 끼지 못한 일군의 화가, 조각가, 판화가 등이 위해 신 새벽에 멀리 길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유난히 한심하다 생각된다.

이듬해 연 첫 번째 그들전에서 모네가 ‘인상-해돋이’를 출품하는데 이 전시를



모네 작 ‘인상-해돋이’

관람한 비평가 루이 브로이가 이 그림의 제목이 특히 우습다고 생각하여 전시회에 참가한 그림 전체를 ‘인상주의자들’이라고 조롱 섞인 어투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인상파’라는 명칭이 유래하기도 했다.

‘빛은 곧 색채’라 생각했던 모네는 덧없는 한 순간의 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자 했는데 전통적인 회화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그려냈던 ‘인상주의자’ 모네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회화사는 현대미술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을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